

제7회 여성문학상 수상작 · 수기 2회

여성이 남성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요?

유영선

미운 털 박혀 전출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루머 탓에 나 이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경력이나 직급으로 보나 사보팀 3명 중 가장 우위를 차지해야 할 내가 낯선 임지에서 적응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 으니 출근길 발걸음 떼기가 몹시 곤혹스러웠다. 더우기 H자동차서비스는 84년 기혼 여직원 공채시 단 한명도 받아들이지 않은 회사였다.

하나 의외로 강한 구석이 내게 있었다. 어떻게 구한 직장인데 여기서 좌절하겠는가 싶어 업무 실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기로 결심하고 사보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을 밤새워 연구했다. 그런 면에서 사보 는 힘이 돼주었다. 다른 업무 와 달리 사보 일은 매달 한 권씩 책으로 만 천하에 공개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차츰 업무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할 무렵, 그러니까 H자동차서비스로 전출 당한지 꼭 만4개월 15일만에 사보팀 소속이 바뀌어 버렸다. 전출할 당시의 총무부 소속에서 기획 실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다.

모했던 일은 소속이 바뀌 기 훨씬 전에 남자 대리와 사원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데 있다. 내일이면 기획실로 이사가야 한다면서 남자 대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유대리께서는 아마도 사보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엉뚱한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설마 기획실이라 해서 전공이 신문방송학이고 경력이 언론사 기자인 직원에게 엉뚱한 업무는 맡길 리야 있을까 싶어서였다.

90년 7월1일부터 사보팀은 기획실에 소속됐다. 또다시 더욱 낯선 곳에서의 낯익히기가 시작됐다. 천만 다행스러웠던 것은 업무가 바뀌지 않고 그냥 사보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두어달이 지난 후 뜻밖에도 사보팀 3명 중 남자 대리가 사사(社史)팀을 맡으며 떠나갔다. 나보고 사보 일을 못하게 되리라 예언했던 사람이다. 알 수 없는 게 세상사다. 사보팀에는 여직원 1명이 보강됐다. 처음에 극히 비협조적이던 남자사원은 여직원이 보강되자 위기감을 느꼈는지 겉으로나마 내게 공손했다. 그런 카멜레온 같은 성품을 가진 남자를 양산해내는 사회적 구조가 역겹게 느껴졌지만 그 역시도 내가 속한 사회의

속성들의 일부분일테니 어찌 하겠는가.

나는 정말 열성적으로 일 했다. 때마침 H자동차서비스는 사세가 확장일로에 있어 그때까지 총무부 소속이었던 사보팀을 흡수해간 기획실 업무 확장을 하면서 홍보업무에 투입될 직원을 H그룹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해 왔던 차였으므로 분위기가 훨씬 내게 유리해졌다. 왜냐하면 그룹 홍보실에서 일한 경험은 나 이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룹 전체를 알고 있다는 건 대단한 노하우였다. 스카

되지 않았다 하여 아무리 내가 자격을 완벽히 갖췄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진급시켜야 마땅하다는 지론(?) 때문에 탈락하고 말았다. 만약 내가 남자였다면 그런 얼토당토한 지론을 내세웠을까? 단지

실력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없을 때 쓰는 지속적인 방법을 그들은 서슴치 않고 사용했다. 기혼여성이기, 한번 전출당한 이력 때문에 소문의 진위와 관계없이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그들은 악용했다.

여자가기 때문에 나는 한 해를 걸러 그 남자 대리와 함께 과장으로 진급했다.

과장으로 진급하고나서도 여전히 사보팀은 내가, 사사 팀은 그 남자과장이 맡게 돼 자 회사 내에 우스꽝스러운

고역이었을 수도 있었으리라. 더구나 여성 관리자에게 빠른 승진, 좋은 직책을 회사 조직이 결코 주지 않을 것임을 익히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자신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상사가 여성보다는 남성임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다.

93년 국민당이 와해되면서 영입됐던 H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속속 귀환했다. 사보팀에서 자원, 전출했던 남자사원은 내게 돌아오기가 싫었는지 그룹 문화실을 지원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나 그룹 문화실은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처럼 몰상식한 행동을 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지면이 부족한 탓에 일일이 그들의 행동을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장 비열했던 것은 그들이 퍼뜨린 소문이다. 실력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없을 때 쓰는 저속한 방법을 그들은 서슴치 않고 사용했다. 여자가기 때문에, 더우기 가정을 가진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또한 한번 전출당한 이력 때문에 소문의 진위와 관계없이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그들은 악용한 것이다. 그런 그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인들이라니...

각설하고 93년 9월 어느날 나는 기획실 총괄 중역에게 불려가 사표를 중용받았다. 나는 사표 쓸 이유가 없었으므로 거부했고 그로인해 사보팀에 대

단 말인가. 내가 만약 남자였다면 남자들에게 부여된 그 많은 혜택에 힘입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아무튼 서럽고 분했지만 참고 일했다. 내 밑에 있는 여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당당함을 계속 보여줘야 했다. 심정적으로는 치사해서 사표를 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내가 잘못된 일 없는데 그까짓 소문에 밀려 그런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을 정당화시켜주는 꼴이 될테니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 가만 있기는 너무 억울해서 모함자 처벌을 요구했다. 내가 하도 완강히 항의하자니까 마지못해 사보팀 남자사원을 광고팀으로 전보했다. 기획실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같은 홍보 일이므로 그 남자사원에게 불이익이랄 수도 없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나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다. 왜냐하면 한달 새 1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사보와 16페이지 분량의 사내 소식지를 여직원 한사람과 단둘이서 만들게 되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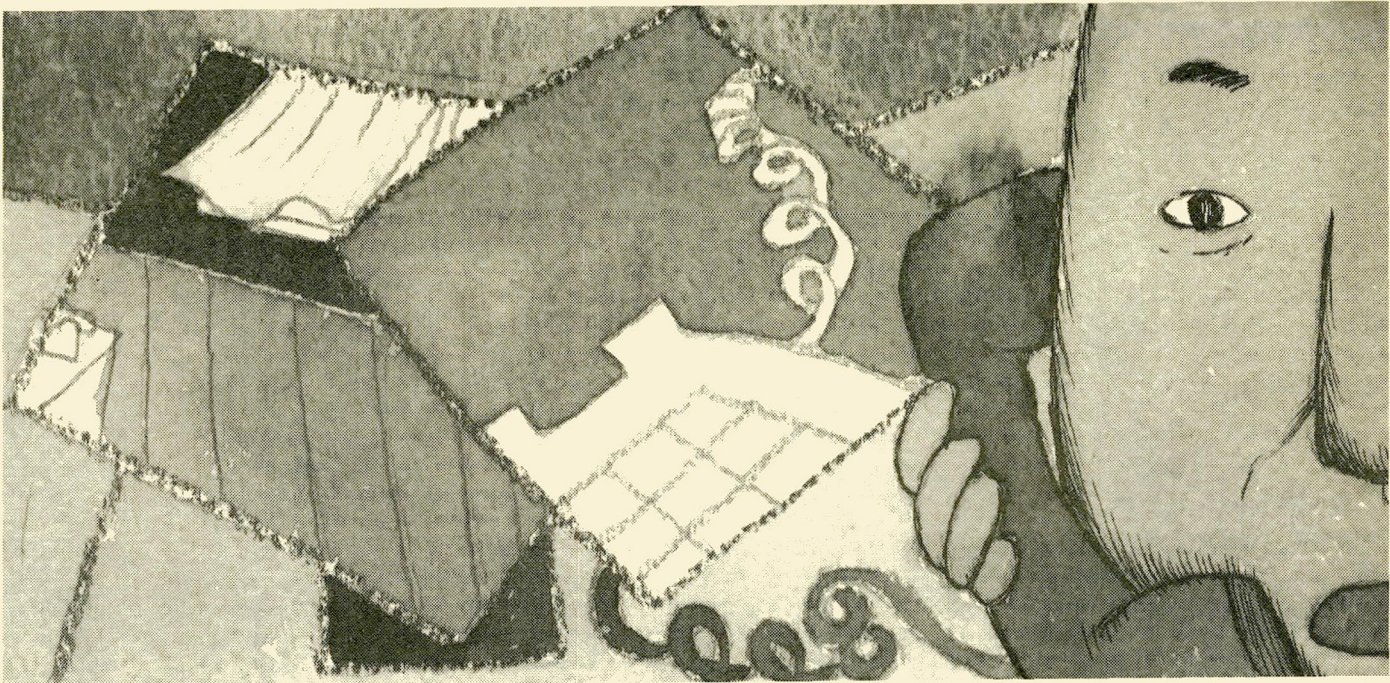
그 남자사원 대신 보충시켜 주겠다고 직원 1명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이듬해 3월 내가 부당전출 당할 때까지도 보충시키지 않았다. 그 뿐이라. 사보팀 관리부장으로 나의 직속상관인 I부장은 그 사건 이후 사사건진 트집을 잡았다. 심지어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주변에 나를 아껴주던 다른 부서의 부장급들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줬다. 그런 일은 반드시 후유증이 따르는 법이니 사표 중용 중역에게 반드시 해명 각서를 받아놓아야 한다고. 그랬지만 그때도 나는 바보처럼 ‘설마 하는’ 상식을 믿고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간과했던 사실은 여성에게 배타적인 기업 풍토에 있다. 앞서 언급했던 사보팀을 맡고 있던 남자과장은 너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감사직후 그는 느닷없이 3개월을 휴직하면서 이번에는 기획실 총괄 중역보다 더 높은 곳에 꽤나 조직적으로 모함하기 시작한 것이다. 감사 결과의 잘못을 운운하면서 이번에는 아예 기획실 담당 중역까지도 포함시켜 버린 것이다.

기업의 생리를 알고보면 파렴치한 일도 많다. 그 중 하나가 중역들의 파벌 싸움이다.

(다음호에 계속)



웃 당해 H자동차서비스로 온 직원에게 나는 정보망이었다. 기획실을 총괄하고 있던 중역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범대 출신으로 홍보 분야에서 일해본 경험이 전무했던 그는 대외적으로 회사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 열심이었으므로 더욱 그랬다. 나는 여성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그를 보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사보 필자 중에 유명인이 라면 반드시 명단과 프로필을 만들어 보고했고 사적인 만남을 원하면 자리도 주선했다. 자연히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윽고 있는 계열사 전출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92년 나는 과장으로 진급했다. 91년에도 한번 거론됐으나 사보팀 전임자였던 남자대리(사사팀장)의 진급연한이

숙달 하나가 굴러 다니기 시작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겠다’고.

92년 H그룹은 대선 열풍에 말려들었다. 전 직원이 대선을 위해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했다. 사보 역시 대선을 위한 은근한 P.R에 진력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사보팀의 남자사원이 국민당으로 전출했다. 내게 상의한 마디 없이 자명한 것이다.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를 추천해서 회사에 입사시킨 그의 선배이며 함께 시인의 길을 걷고있는 사보팀 전임자였던 선배(사사팀장)가 없는 사보팀 업무가 그에게는

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내게로 복귀했다. 나는 어린 탓으로 돌리고 그를 포용했다.

지금에 와서야 그가 나를 기피한 원인의 하나가 사보팀 전임자였던 남자과장에 대한 후배로서의 의리란 것을 알게 됐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기업에

지금에 와서야 그가 나를 기피한 원인의 하나가 사보팀 전임자였던 남자과장에 대한 후배로서의 의리란 것을 알게 됐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기업에 만연한 종속적인 인간고리를 잘 모르고 있었다.

업에 만연하고 있는 종속적인 인간고리를 잘 모르고 있었다. 더우기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집요함과 권모술수는 더더욱 몰랐다. 당시만 해도 나는 ‘상식’ 신봉론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사보

한 자체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 실시 기간 중에 보직도 박탈 당했다. 일주일에 걸친 감사결과 내게 다시 보직이 부여됐고 모함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일련의 조사로 해서 기획실 내에서 만신창이가 됐을 뿐 아니라 감사 당시 외부 필자 확인 과정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명예가 실추된 후였다.

분한 마음을 어찌 다 호소하리. 단지 월급을 주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회사가 이같이 한 여자의 인간성을 말살해둔단 말인가. 아니, 한 여자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방법이 비열한 수단 밖에는 없